



www.at.or.kr

대만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4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4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대만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4. 주류 (민속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6. 소스류 (조미료)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조미료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4월 21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대만 달러=37.4원

1~4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대만



1. 김



2. 음료류 (과채 주스)



3. 면류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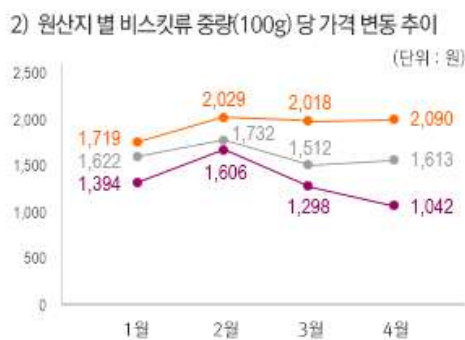


4. 주류 (민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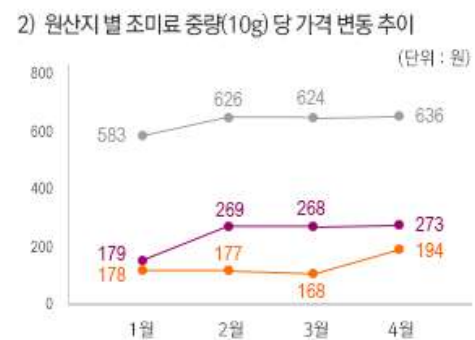


※ 4월의 경우 해당 수입 품목 조사되지 않음

5. 제과류 (비스킷류)



6. 소스류 (조미료)



주류

수요 증가 ▲ “ 따뜻한 날씨와 프로모션 진행으로 판매율 늘고 있어 ”

중국에서 주류를 전문적으로 수입, 수출, 유통 진행하는 PAICHI(百棋貿易有限公司)의 담당자 Mr. Song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매화수 스파클링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있는 추세라 밝혔다. 봄이 찾아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지자 여러 상점들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판매량 증가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시기에는 높은 도수와 강한 맛을 내는 독한 술보다 낮은 도수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며, 매화수 스파클링 외 한국 맥주를 상위 판매율에 랭크된 제품으로 소개했다. 해당 판매 추세는 보통 짧게 지속되기에 한국산 제품의 수요변화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화수 스파클링]

가격 하락 ▼ “ 프로모션 제품 = 가격 인하 제품 ”

수입 주류를 전문적으로 유통, 수출 중인 PAICHI(百棋貿易有限公司)의 담당자 Mr. Song의 말에 따르면, 4월은 한국 주류의 프로모션 진행기간으로 해당 제품들의 가격만 소폭 인하되어 판매 중이라 밝혔다. 현재 한국 주류제품의 대만 내 시장가격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증감의 변동추이가 제품의 판매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가격적인 면에 있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에 변화를 주어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진로社 핫 복분자]

스낵류

가격 하락 ▼ “ 중화권 소속국가 영향, 롯데社 가격 조정 불가피 ”

대만 내 한국 식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유통중인 KOREA SHOP CO., LTD.의 대표자 Ms. Wei Shin Hui의 인터뷰에 따르면, 롯데社의 스낵류 제품 대부분의 가격이 인하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대만도 중화권에 속한 국가로 중국의 롯데마트 영업정지 및 불매운동으로 인한 압박이 롯데社의 제품 가격이 조정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했다. 대만 내 대형 마트와 체인점들이 가격 하락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대량으로 수입하고 할인 판촉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제품의 가격이 또 한 번 낮게 책정되었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화권 내의 롯데社의 불안정한 입지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社 스낵제품]

기타 가공식품

수요 증가 ▲ “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가 유행 ”

대만의 한국식품 및 한국 생활용품 전문 수입/유통업체인 KOREA SHOP CO., LTD.의 대표 Ms. Wei Shin Hui과의 인터뷰 결과, 청정원社의 순창 고춧가루 제품의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다 전했다. 최근 대만 시장의 채소 가격이 저렴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고춧가루를 구매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유행이 돌고 있다고 했다.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主計總處)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기후적인 요소에 의한 공급량의 격차로 과일값은 고공행진 중이며 채소 가격은 급락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7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유로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집 반찬에 대한 수요가 늘자 기본 찬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유행의 존속기간은 얼마가 될지 예측이 어렵다 전했다.



[청정원社 고춧가루]

신선식품

수요 감소 ▼ “ 지금은 한국산보다 칠레산 ”

대만에서 신선과일의 수입·유통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Chang Lung Agriculture (長龍農產股份有限公司)의 수입판매부 사원에 따르면, 한국산 배와 사과의 판매량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봄이 시작되는 3월 말 ~ 4월의 해당 시즌에는 한국보다 칠레에서 수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계절 및 날씨의 특성상 칠레의 과일이 당도와 품질 면에서 더 뛰어나기에 일시적으로 한국산 과일 취급수량 및 판매량이 급감한다고 했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산 과일의 공급 및 수요가 월등히 높으며 현지 과일보다 비싸지만 맛있고 외형이 예쁘기 때문에 한국산 과일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배, 사과]